

Governance Opinion

< 정도경영의 이면 >

코

스닥 상장기업 경창산업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창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내노라하는 자동차 회사에 AUTO 트랜스미션부품, CABLE류, 페달류 등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1961년 설립된 경창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 등 관련 업계에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표창 등 다방면에서 칭찬이 자자한 중견기업이다. 경창산업은 2016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5,000억원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은 5,383억원, 영업이익은 161억원 수준으로 재무적으로도 흠 잡을 데 없이 뚝뚝한 기업이다.

경창산업의 경영이념은 정도경영(正道經營)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경창산업이 자동차부품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걷는 정도경영 이념이 기업 경영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 경창산업이 국내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경영의 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창산업의 최대주주는 손일호 대표이사이다. 손일호 대표이사는 창업주인 손기창 명예회장의 아들로 2세 경영인이다. 손일호 대표이사 개인은 경창산업의 지분 18.37%를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 및 관계회사 보유지분까지 포함해 경창산업 최대주주 그룹은 약 38.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관계회사인 대경A/S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경A/S는 경창산업의 지분 약 2.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인 손일호 대표이사와 그의 부친인 창업주 손기창 명예회장, 그리고 손일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손영해, 동생인 손덕수 부회장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경창산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대경A/S에 대해 DOOR 및 본네트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이며, 경창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경A/S의 감사보고서에는 주된 사업을 현대모비스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중 판넬 부분의 판매를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경A/S는 경창산업의 계열회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경A/S와 경창산업은 전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대경A/S는 경창산업의 계열회사지만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설립된 대경A/S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6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는 뺀 순 자산 규모는 약 81억원이다. 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우량한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매출은 약 22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1.3억원, 당기 순이익은 8억원이다. 대경A/S의 매출규모나 이익규모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창산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이익률로 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경창산업은 5,383억원의 매출에 16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약 2.99% 수준이다. 반면 대경A/S는 228억원의 매출에 11.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약 4.9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이익률의 관점에서는 대경A/S가 경창산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경A/S는 이러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매년 1억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본금 5억원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창산업은 대경A/S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런 알짜 회사를 소유한 주주는 누구일까?

대경A/S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경A/S의 전체 지분 가운데 47%는 손태훈이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손태훈은 경창산업 손일호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1994년생이다. 1994년생 손태훈은 2003년 설립된 대경A/S의 최대주주이다. 물론 손태훈이 대경A/S를 설립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경A/S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2005년부터 손태훈은 대경A/S의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대경A/S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손태훈의 나이 10살 때 대경A/S의 최대주주로서 대경A/S를 설립한 것이 되고,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12살 때 손태훈은 대경A/S의 최대주주였던 것이다.

아직 초등학생이던 손태훈은 과연 무슨 능력으로 대경A/S를 설립할 수 있었으며,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의 유통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까?

이는 대경A/S의 이사회 구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현재 대경A/S의 사내이사는 손영해, 손덕수, 손영진이며, 감사는 손영재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손영해가 맡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영해는 경창산업 손일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다. 즉, 손태훈의 모친이 된다. 그리고 손덕수는 손일호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 손태훈의 삼촌이 된다. 그리고 손영재 감사는 경창산업의 기획 담당 부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성윤규가 대경A/S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성윤규는 경창산업의 기획 담당 상무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린 손태훈을 위해 어머니와 삼촌이 모두 나서 일을 돕고 있으며, 경창산업의 고위 임원들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앞서 초등학생이 설립한 대경A/S를 유통 파트너로 인정한 현대모비스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어렵잖게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1994년생 손태훈은 10살때 대경A/S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제 20대 초반인 손태훈은 총 자산 160억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매년 배당으로만 5천만원에 가까운 수입을 얻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메이커인 경창산업의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창산업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새로운 법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창산업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창산업은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인 위드텍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경창산업은 위드텍으로부터 약 81.7억원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76억원을 매입하는 거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위드텍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경창산업의 대표이사는 손일호이다.

손일호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위드텍은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3억원이다. 주된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이다. 경창산업의 사업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위드텍의 대표이사는 손영재이며, 차달준, 손지영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석도가 맡고 있다. 위드텍의 대표이사 손영재는 앞서 대경A/S의 감사를 맡고 있던 경창산업의 기획 담당 부사장이며, 차달준은 경창산업은 TM본부 담당 부사장이다. 감사 이석도는 경창산업의 계열사인 경창정공의 임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지영은 손일호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표면적으로 경창산업과 위드텍은 그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계열회사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경창산업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을 위한 경창그룹 인트라웹인 경창인트라웹에는 위드텍이 경창산업 본사 및 경창정공 등 계열사와 함께 경창인트라웹에 포함되어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계열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손일호 대표이사 소유의 위드텍은 경창산업 주요 임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창산업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아울러 마치 계열회사처럼 경창그룹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창산업과 위드텍의 거래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다. 경창산업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드텍과 거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엄격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창산업의 공시에는 위드텍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정도경영

경영이념은 그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 행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정신이자 가치를 의미한다. 경창산업의 경영이념인 정도경영은 경창산업의 모든 경영 행위의 밑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른 길, 정도(正道)는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주주, 그리고 회사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한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창산업은 그 탁월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에 대해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2세, 그리고 3세 경영자와 관련된 다소 불투명한 의혹들이 혹시 경창산업의 정도에 그림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경창산업이 정도경영을 통해 글로벌 톱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다.